

2019.2월 제4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2월 제4호

CONTENTS

이슈 리포트	2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17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25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 토큰 경제 차세대 주역으로 떠오른 'STO(Security Token Offering)'
 - 증권형 토큰의 상대적 강점과 리스크 그리고 활용 잠재력 분석
- 시총 18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클래식(ETC)' 이중 지불 공격 발생
 - 46만 달러 피해

■ 토큰 경제 차세대 주역으로 떠오른 ‘STO(Security Token Offering)’

- 증권형 토큰의 상대적 장점과 리스크 그리고 활용 잠재력 분석

-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암호화폐가 기초가 되는 자산(underlying asset)이나 사업에 대한 지분 또는 소유권이란 권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임. 이러한 점 때문에 암호화폐가 과연 가치를 가지느냐는 데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임
- 반면에 STO(증권형 토큰)는 underlying asset이나 사업 등에 대한 지분을 암호 자산화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로는 암호자산의 금융상품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증권형 토큰의 경우 국가별 관리 감독 세부사항 및 정책 시행 현황이 다르고 자금 유출 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경을 뛰어넘는 대규모 거래가 쉽지 않으며, 장외 거래 또한 주기적인 관리 감독 규제를 받게 됨
-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시장 기대만큼 STO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 STO 장점 : 기존 토큰의 기능 개선

(1) 유동성 확대 및 시장의 질적 성장 촉진

- 다양한 증권 자산 간의 STO 거래는 자산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함. 강화된 STO의 상호 운용성과 더불어 금융혁신은 또다시 유동성의 확대 잠재력을 높임
- STO는 자금조달 채널을 확장하고 세분화된 금융상품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함. 거래 단위를 세분화해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며 자산 표준화 협약을 제정해 다양한 자산, 다양한 법정화폐간의 상호 교환을 가능하게 함
- STO가 궁극적으로 완벽한 365일 연중무휴 거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유동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프로그래밍 가능한 STO, 관리 비용축소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STO는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산형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빠른 결제 및 합법성 강화를 실현해 결제 관련 관리 감독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또한 STO는 소유권을 최소 단위로 세분화해 중소형 투자자도 자유롭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즉, 대형 자산 거래를 분할하여 유동성이 작고 가격이 높은 자산 거래가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함. 여기에는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신탁, 부동산 등 실물 금융 자산이 포함됨
- STO는 해당 자산을 네트워크상의 암호화폐 지분 증명으로 전환, 실물 경제의 각종 자산, 이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실현함.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 등을 바탕으로 실명인증(KYC), 투표 운영, 배당 분배, 계약 위반 리스크 방지, 지불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함
-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은 STO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합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함. STO는 거래, 결제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 자동화를 실현하며 자동화, 합법성, 빠른 결제를 구현함
- 또한 관리·감독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실제 기존 시스템은 자산 유형, 투자자 유형, 매수 및 매도자 관할권, 증권사 관할권 등에 따라 변화가 있고, 규정별 다양한 거래 대상, 거래 관리 감독 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높았음
- STO는 일종의 ‘합법적 코드화’의 구현임. 기존 관리 감독은 세분화된 플랫폼 내 심사 기준을 하나하나 처리해야 했지만, STO 관리 감독 시스템은 전체 과정을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입력, 체계적으로 증권 시스템 구조에 연결

되도록 하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3) 상호 운용성 및 가치 유동화를 쉽게 해 금융혁신 촉진

- STO의 상호 운용성은 다양한 자산 간의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가치의 유동성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자산 증권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음. 동시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점은 암호화 증권 토큰의 재조합, 세분화 등을 가능하게 함. 이와 같은 특징은 금융상품 혁신 실현을 가능하도록 함
- STO는 신형 증권형 자산으로 디지털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함.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거래는 법정화폐를 매개체로 진행됨. 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꾼 뒤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자산으로 바꿈. 이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비싸지고 효율성이 떨어짐. 더군다나 국경 간 자산 거래는 환율 등 영향도 받게 되며, 자산을 ‘STO화’ 하면 유통, 교환과 같은 편리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음

(4) 자금조달 비용 절감

- STO는 자금조달 중간단계를 생략, 자금조달 효율성을 제고하며 자금조달 시간, 비용, 정보 비대칭성 등 측면에서 IPO보다 우수함. 특히 중소형 IT 첨단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함

유형	IPO	ICO	STO
증권유형	증권	토큰	증권
기반자산	실물유가자산	체인상 자산	실물유가자산
기업유형	거래소 규정별 상이 대부분 중대형 업체	중소형 스타트업 탈중앙화 기관	중소형 창업회사
상장비용	상당히 높음	상당히 낮음	보통
기업리스크	비교적 작음	상당히 큼	적정수준
자금조달규모	큼	중소형	큼

유형	IPO	ICO	STO
관리감독수준	높음	낮음	조정중
중앙화	중앙화	비중앙화	중앙화
운영투명성	높음	낮음	조정중
투자리스크	중간	높음	상대적높음
적격투자자여부	O	X	O
투자자보호수준	높음	낮음	보통
24시간거래여부	X	7x24H	7X24H
지정거래소	있음	없음	제한적라이선스발급

- STO 방식은 중개업체 수를 줄이는 한편 금융 기관 부패 및 조작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음. 또한, 법률 간소화 및 기록 보존 등을 통해 투자 은행 및 기타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채권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다만, 중간단계 간소화는 거래 중 발생 가능한 책임을 매수 및 매도자에 이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매수 및 매도자는 매도 청구, 마케팅, 투자자 관심 유도, 합법적 관리 감독 기능 등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기존 IPO 신청 기업은 IPO에 앞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재무조사 및 심사, 법률 의견서 준비, 가격설정, 주식발행 등 과정을 밟아야 했음. 하지만 향후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발전에 따라 첨단 기술 기반 IPO 프로세스 및 상장사 운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투자 조건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금조달의 채널 확장

- 기존 투자 상품은 진입 문턱이 매우 높았음. STO의 발전은 투자자 문턱을 낮추고 자금조달 채널을 확장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

- STO는 투자자의 일정 비율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함. 또한, 개인 투자자가 더욱 쉽게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STO로 분류될 경우 부동산, 예술품 등 고가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 투자가 가능해짐. 대형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 개인 투자자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됨

2. 유틸리티 토큰에 없는 증권형 토큰의 장점

(1) 제도권 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가능

- 증권형 토큰은 일반적으로 ① 프로젝트 코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 투자자 손실을 방지 ② 합법적 심사를 진행, 현지 법적 제도 부합 여부를 판단 ③ 팀 구성원 배경을 조사, 사기를 방지 ④ KYC 및 자금세탁 방지 조사를 진행 ⑤ 토큰 발행 시 자산 혹은 기업 이윤 등 근거 자료가 필요함
- STO 프로젝트 면밀 검사를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옥석 가리기’가 가능. 이를 통해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낮아지고 동시에 시장 환경 개선, 제도권 내 프로젝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음

(2) 내재가치 보유, 실물 자산 및 이익으로 가치 증명

- 증권형 토큰은 기존방식 대비 투자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자체의 내재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 및 실질적 이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디지털 자산의 실물 자산화를 쉽게 함. 이는 곧 디지털 자산이 단순 디지털화 형식이 아닌, 실물 자산 혹은 실질적 이익이 가치를 증명해주는 신뢰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증권형 토큰은 유효한 KYC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개인의 신분을 결합하여 실물 자산과의 가치를 연계해 발행함.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수 있음. 관리 감독 시 기존 실물 자산에 대한

법규 및 코드를 상호결합하고 지분 보유자의 자산 안전성과 합법성을 보장함. 더불어 인터넷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규모 증가 시 상품 가치와 이용자 사용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함

(3) 전통 자금 유입 촉진

-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잠재력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 암호화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수익성은 전통 금융 시장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함. 다만 관리 감독 및 정책 리스크 등은 투자자 시장 진출을 막고 있어 이로 인해 STO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태도가 명확해진다면 더 많은 투자자의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향후 신뢰 가능한 관리 감독 체제가 구축된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채권, ETF, 선물 등 전통 금융 자산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됨

3. STO의 활용 장점

비교대상	STO 활용 장점
일반증권	프로그래밍 가능성, 상호 운용성
유틸리티 토큰	합법성

(1) 증권형 토큰 활용 시 장점

- 합법성 측면에서 볼 때 증권형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보다 뛰어남.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인프라가 요구됨. 한편 STO 플랫폼 인프라는 디지털 신분, 디지털 자산, 합법적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됨

명칭	주요기능
디지털신분	디지털 신분은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개인, 조직, 사물 신분정보. STO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신분확인 작업을 요구함
디지털자산	디지털 자산은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통제 가능한 자산. 탈중앙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개업체가 필요 없고 추적이 가능하며 거래투명성이 높음
합법적모델	안전 거래, 프라이버시 보호, 계약 위반 방지, 거래 심사, 모니터링 등 관련 제도권 내 합법적 관리 감독을 진행함

- STO방식은 디지털 신분, 디지털 자산, 합법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운영 방식을 표방함. 프로그래밍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STO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비교해 뛰어난 점으로 꼽힘
- 신분 ID,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 프로그래밍 기능은 STO가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 계약기반 자동화 거래와 빠른 결제를 실현함
- 합법성 측면에서 볼 때 증권형 토큰은 관리 감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복잡한 관리 감독 시스템은 거래 비효율성을 야기함. 관리 감독규정마다 각기 다른 규제 대상, 규제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정 컨센서스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관리 감독 합법성은 실물 기록 거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 지연·비용 증가·유동성 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음

(2)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장점

- 거버넌스 측면에서 유틸리티 토큰의 거버넌스는 대부분 개발팀이 자율적으로 맡아 진행되는 반면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프로토콜, 토큰, 트레이딩 기반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거버넌스수단	주요강점
블록체인	준법감시(compliance) 노드(로펌, 증권중개인 등) 및 인프라스트럭처 노드(커스터디 계정, 클리어링 하우스 등)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노드구조, 포크여부 결정 및 노드 투표 등 네트워크 중대 사안의 결정이 법의 보호 아래 더 완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됨. 규제 법률 및 법규 적용, 코드 심사 및 감사체계, 개발팀 이력 검증, 프로젝트 적법성 검증, 자본준비금 심사 등 절차를 통한 합법성 강화
프로토콜	KYC/AML(자금세탁방지), 프로토콜 수정, 투표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주식배당, 위약리스크, 오프체인 데이터 접근, 결제, 재구성 등 과정의 적법성 강화. 증권형 토큰 거래에 널리 사용되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등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함

거버넌스수단	주요강점
토큰	토큰 이코노미 체계, 재무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자본금 및 배당 시스템
트레이딩	증권형 토큰 관련 심사, 공시, 커스터디, 인증·정산, 모니터링 등 기능을 추가해 중앙화 거래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규정 적용

- 물론 증권형 토큰 역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과 관련해 기타 토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부여받음. 해당 토큰들의 인프라는 KYC/AML(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시 관련 법 준수 등 요구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함. 동시에 증권형 토큰 운영사는 리플레이 공격, 거래철회, 동결, 강제집행 등 권한을 부여받는데 이는 퍼블릭체인의 이념과는 어긋나며 상대적으로 대량의 자본준비금이 필요하여 퍼블릭체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시 부담해야 하는 책임 역시 상대적으로 큼
- 따라서 STO 진행은 퍼블릭체인에만 의존할 경우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비교적 큼. 이에 일부 프로젝트들은 오프체인+온체인 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블록체인 외의 현존 규제기관을 통해 일부 인증 절차를 대체하는 형식임
- 일부 프로젝트들은 컨소시엄/프라이빗 체인 및 컨소시엄/프라이빗+퍼블릭 체인 혼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 및 거버넌스 정책을 블록체인 상의 프로그래머블 인터페이스(programmable interface)로 전환하기도 함
- STO 진행의 절차적 거버넌스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단계	세부내용
One Step	로펌, 증권중개인 등 새로운 준법감시(compliance) 노드를 네트워크에 편입하거나, 새로운 적법성 유지 규칙을 도입해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 관련 거버넌스 정책 마련
Two Step	KYC/AML 인증 및 자본 장악 여부 검사 절차 등을 통한 STO 거래 관련 투표 및 인센티브 정책 마련

4. 결론

-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기조는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증권형 토큰이 범국가적 대규모 거래를 실현하기는 어려움. 증권형 토큰의 장외거래시장 역시 주기적인 규제 관련 제한을 받음. 현재 시장에는 합법적인 증권형 토큰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부족하고 증권형 토큰의 표준화 역시 부진한 모양새임
- 증권형 토큰의 타켓 시장은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투자자들임. 이는 유틸리티 토큰보다 시장이 작고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세계 각국의 각기 다른 규제 정책이 증권형 토큰의 글로벌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 토큰을 인정하고 규제 한 후 중국 정부는 이를 토큰이나 해외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증권형 토큰에 투자할 수 있을지, 미·중 양국 간의 규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법정 분쟁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등 STO와 관련해 아직 많은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음
- 특히 증권형 토큰이 현재 암호화폐 유동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외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을지와 그에 따른 KYC/AML 규정 준수 등 규제작업은 어떻게 이뤄질지 등 문제는 STO를 둘러싼 주요 화제로 매번 언급되곤 함
- 중국 암호화폐 평가기관(SNC)은 향후 일정 기간 내 증권형 토큰의 영향력이나 자산 유동성은 시장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STO관련 법률 체계와 인프라 시설의 최적화 작업이 완료된다면 영향력·유동성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SNC의 분석임

※ SNC(STANDARD & CONSENSUS) : 중국 암호화폐 평가기관

- 먼저 STO 관련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 ① STO는 운영사의 일정 기간 매출과 현실 자산 기반 준비금 등 경영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함
 - ② STO관련 규제기관의 부재로 증권형 토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규제기관의 설립이 시급함. 해당 기관을 통해 정책 제정, 자산 리스크 관리, 증권형 토큰 거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③ 정보공시 플랫폼 마련
 - ④ 특수목적법인(SPV)관련 법률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 시장에 대한 엄격한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함. 법률적인 관점에서 SPV는 독립법인 성격을 띠며 법인의 소유권은 발기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해 시장 조작 등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차원의 강제집행 조치 등 법률적인 제한 장치가 필요함. 또한, SPV 설립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STO 인프라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 ①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 및 KYC/AML 규정 외에도 STO관련 인프라는 투표 거버넌스, 개인정보, 오프체인 데이터 접근, 파생상품 등 분야가 존재함
 - 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인프라는 디지털ID, 디지털 자산, 합법형 모델 외에도 신분 기반의 간단한 컨센서스 알고리즘(현존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증권형 토큰 모델 간소화), 암호화 금융의 기본단위(fundamental unit, 모든 증권형 토큰은 금융 기본단위의 조합), 보다 간단한 대화형 데이터(interactive data, 증권형 토큰은 오프체인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 및 교환이 자주 일어남) 등이 존재함
 - ③ 채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등 전통 금융 자산과 암호화폐를 잇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 ④ 본인을 증명하고 투표권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컨센서스 모델
- ⑤ ‘채권형’ 증권형 토큰은 위약 리스크, 주식배당 등 채무의 동태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새로운 범용 프로토콜이 필요함. 다르마 (Dharma)프로토콜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보다 증권형 토큰 맞춤형인 범용 프로토콜이 필요함
- 블록체인 자체는 아직 미지의 사회적 실험과 같음. STO 역시 아직은 발전 초기 단계로 가야 할 길이 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해 STO의 실질적인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함

■ 시총 18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클래식(ETC)’ 이중지불 공격 발생

- 46만 달러 피해

-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9년 1월 7일 ETC 네트워크에 대한 이중지불 공격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코인의 거래를 중단함. 마크 네스빗 코인베이스 최고 보안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차례 걸쳐 ETC에 대한 이중지불 공격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 이중지불 공격 : 동일한 암호화폐에 대해 고의적으로 중복 거래를 발생시켜 이득을 챙기는 행위



- 이 과정에서 공격자는 8만 8,500ETC를 챙김. 당시 가치로 46만 달러 규모임. 뒤이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아이오 역시 이중지불 공격으로 인해 4만ETC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힘. 이에 코인원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은 잇따라 ETC거래를 일시 중단하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에 나서고 있음
- 이중지불 공격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허점으로 꼽힘. 이론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해시파워(연산능력)의 51% 이상을 장악하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ETC처럼 채굴 참여자가 많은 대형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탓에 사실상 비현실적인 일로 여겨져 왔음



- ※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2019년 1월 7일 저녁 공식 트위터를 통해 ETC 이중지불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코인니스의 단독보고를 인정함
- 실제로 2019년 1월 6일 오후 중국 블록체인 보안 전문업체 슬로우 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특정 채굴업체가 ETC 네트워크 연산능력의 51% 이상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함. 이에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이중지불 공격의 의도는 없다”고 진화에 나섬. 그러나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ETC 네트워크 장악에 의한 이중지불 공격은 사실로 밝혀짐
- 시가 총액 기준 상위권 암호화폐에 대한 이중지불 공격이 이뤄진 것은 2018년 5월 비트코인골드 이후 약 8개월 만임. 당시 피해금액은 200억원에 달함. 이와 관련해 게이트아이오 거래소 측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지속하면서 암호화폐들의 시가 총액과 해시파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진단함

- 블록체인 보안 전문업체 팩실드 역시 “암호화폐 가격 하락·채굴가 이탈·해시파워 감소·네트워크 장악 시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거래소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2019년 1월 7일 ~ 9일까지 ETC 51% 공격 관련 시간순 정리

일시	언론사	헤드라인
1.7일 12:05	ETC공식 트위터	ETC “네트워크 정상 작동 중...이중지불 공격발생은 루머
1.7일 20:45	ETC China	ETC, 특정 프라이빗 채굴풀 해시파워 한때 50%초과...아상징후 포착
1.8일 06:11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	코인베이스, ETC 거래·입출금 일시중단
1.8일 06:58	코인데스크	린즈 “ETC블록 재생산 사건과 무관”
1.8일 07:52	ETC공식 트위터	ETC “블록 재생산 사건,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아”
1.8일 11:44	코인데스크	다수의 글로벌 거래소, ETC 입출금 중단
1.8일 11:58	팩실드	팩실드, “ETC이중지불 공격 진행중...거래소 입출금 중단해야”
1.8일 12:36	게이트아이오 공식채널	게이트아이오 “ETC 이중지불 공격자 확인...3개월간 준비”
1.8일 15:10	크립토51	51% 공격 우선순위 TOP5...ETC·DASH·MONA·ETP·BTC
1.8일 17:43	OKEx 홈페이지	OKEx “OKEx, ETC 51% 공격으로부터 안전”
1.8일 20:00	크라켄 공식채널	크라켄, ETC입출금 일시 중단...거래는 정상 지원
1.8일 21:57	팩실드	팩실드 “ETC 이중지불 공격 진행중...손실액 22만 ETC규모
1.9일 01:26	ETC공식 트위터	ETC개발자 “ETC 51%공격은 네트워크 규모 및 채굴 알고리즘 공유 탓”
1.16일 04:36	슬로우미스트	슬로우미스트 “ETC 51%공격자, 피해 거래소에 ETC 전액 반환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1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현재, 'ICO 금지 위헌' 재판부 회부

- 서울경제에 따르면, 2일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가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8헌마1169)' 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2018.12.26.일 내림
- 이는 프레스토(블록체인 개발업체)가 낸 헌법소원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임
- ※ 블록체인 개발업체 프레스토 : 작년 12월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함

■ 중국 CCTV “한국 암호화폐 채굴업 위기...작년 70~80% 채굴중단”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중국 관영 경제채널 'CCTV-2'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한국 암호화폐 채굴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함
- 지난해 지속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로 한국의 암호화폐 채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97.5% 감소하며, 이로 인해 “70~80%의 암호화폐 채굴장이 채굴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함

■ 코인니스, 최문순 강원도지사 “암호화폐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 3일 코인니스 인터뷰를 통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남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암호화폐 시범 사용 등을 통해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함
- 향후 블록체인 육성 목표와 관련해 “강원도는 ‘블록체인’ 을 활용, 기존 중앙형 시스템 구조를 분산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며 “1.28일~29일 평창에서 개최되는 ‘블록체인 경제포럼 2019’ 를 통해 업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적 특징을 살린 블록체인 상용화에 앞장서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힘

■ 김정주 NXC대표 다음 행보... ‘블록체인’ 등이 키워드

-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게임회사인 넥슨 창업자 김정주 (51세) NXC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 회사 NXC의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김대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김 대표가 ‘똑똑한 소수’ 와 사업을 키워나가는 걸 좋아했던 점, 2016년 유럽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스탬프’ 인수 당시 ‘코빗’ 의 유영석(38)씨를 비롯한 소수의 핵심인물을 칭찬하며 관련 업무를 일임했던 점, 최근 미국 등지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며 사교활동에 주력했던 점과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던 점등을 주목하며, 그의 다음 행보로 ‘유럽’ , ‘소수의 인재’ , ‘블록체인’ 등을 제시함

■ 네이처, 2018 핫 키워드 선정...블록체인 2위

- 국내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핫 키워드 Top10을 발표함
- 1위는 ‘암(Cancer)’ , 2위는 ‘블록체인(Blockchain)’ , 3위는 ‘빅데이터(Big data)’ 가 선정되었고, 그 뒤를 이어 인공지능, 심근경색, 교육, 마케팅, 기후변화, 심장, 4차산업이 선정됨

■ 특허청, 국내 기업 블록체인 등 신기술 표준특허 확보에 27억 투입

-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청이 올해 27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업·기관이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LG CNS, ‘이더리움 기업연합’ 가입...기술개발 가속화

-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G CNS가 최근 ‘이더리움 기업연합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회원으로 등록, 세계 빅3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입이 완료되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LG CNS 정보기술원장 조인행 상무는 “이번 EEA 가입으로 글로벌 3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가 구축되었다” 며 “마곡 LG CNS본사를 블록체인 사업 추진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함

■ 빗썸, 첫 희망퇴직 실시...전 직원 10%신청

- 17일자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첫 희망퇴직을 시행함. 미디어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연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인 3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빗썸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최근 암호화폐 자산 투자 열풍이 꺼지면서 수익이 줄었기 때문임

■ 금융당국, 증권사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 개설도 금지

- 조선일보 17일 보도에 따르면,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 후발 주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증권사에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게 됨
- 금융위가 거래소의 증권사 법인계좌에서 개인의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음

■ 정부, 각종 증명서 전자문서로 발급...블록체인 활용

-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종이 문서로만 발급 가능했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자형태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 불편과 비용이 적지 않다고 보고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마련을 추진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는 것이 목표임. 또한, 증명서들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통해 해결할 예정임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8억7천만 건에 달한다”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함

■ KEB 하나은행, ‘이더리움 기업연합’ 가입...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가속화

-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이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와 이더리움 기업연합(EEA)에 가입했다고 밝힘. 하나은행은 하이퍼레저·EEA·R3등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모두 가입함
-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컨소시엄 가입을 통해 해외 블록체인 기술과 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자금결제 및 송금 플랫폼 GLN(Global Loyalty Network)출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박원순 서울시장, 블록체인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행 계획

- 23일 MTN과 체이너스가 공동주최한 ‘2019 블록체인 융합서밋 : 체인 플러스’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을 서울시 행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시민카드를 마련, 통합인증체계를 적용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발행될 서울시민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돼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의 여러 공공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핵심임. 또 박 시장은 “마일리지 기반의 S코인을 제로페이와 연계해 시민의 이용률과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며 “서울시 발주공사의 대금청구 부문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함

■ 식약처, 블록체인 응용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힘
- 해당 시스템은 △위해정보 수집·분석 자동화 △수입자에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위생증명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적용 등이 특징임
-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수입검사에 반영하는 ‘위해도 기반 시스템’을 구현,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현지실사, 유통단계 등 수입식품 전 분야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함

■ 코빗, 빗썸 이어 희망퇴직 착수

-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희망퇴직에 착수

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해당 거래소 한 관계자는 “25일까지 희망퇴직 수요를 확인하고 있고, 몇 명이 퇴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불어닥친 불황 등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함

■ ‘돈스코이 보물선 스캠’ 후속 범죄 계속...주범 행방 묘연

-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 호 투자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류승진 前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의 행방이 반년 넘게 묘연한 상황임
- 경찰에 따르면 류 前 대표는 2014년께 해외로 출국해 현재 베트남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국내 4대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공조 핫라인 구축

-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 이용자 보호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공조에 나섰다고 밝힘
- 이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혹은 확인된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함임

■ 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공개...“수반 위험성과 국제체계 미확립으로 합법화 계획 없어”

- 29일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고 밝히고, 정부는 ICO가 수반한 위험성 및 명확한 국제체계의 부재 상황을 고려해 합법화에 대한 뜻이 없음을 밝힘

- 금감원은 ICO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사례를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부 대응방안을 제시함
 - ①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
 - ②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③ 정책 당국은 ICO에 관한 투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ICO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감

■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KRWb등장..4억원 규모로 스타트

- 31일 핀테크 스타트업인 비엑스비 주식회사(BxB Inc.)가 원화(KRW)와 일대일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KRWb(Korean Won on theBlockChain)을 발행했다고 발표함
- 회사측에 따르면 KRWb는 법정통화인 원화 증거금 기반으로 블록체인 상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엑스비가 원화 4억원의 초기 원화 증거금을 기반으로 동일한 양의 KRWb토큰량을 발행함
- 회사측은 원화(KRW)로 환산 가능한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 한국과 해외에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접근성, 세계 시장 대비 한국 내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 감소 등을 KRWb의 장점으로 꼽았으며,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로 시작하고, 꾸준한 시장 검증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2019.1월]

- 미국
- 베네수엘라
- 러시아
- 영국
- 스위스
- 중국
- 일본
- 싱가포르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미국 백트,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등 1,825억 달러 투자 유치

- 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산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백트(Bakkt)가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Naspers 등 12개 파트너로부터 1,825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힘

■ 미국 포브스, 2019년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으로 ‘블록체인’ 언급

- 2일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의 기고자 제임스 엘스무어(James Ellsmoor)가 최근 2019년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을 전망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함
- 이와 관련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전력공급시스템 내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중개인을 제거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끼리 직접적인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함

■ 미국 백트 CEO, ‘Worth’ 가 선정한 2018년 금융계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72위

- 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백트(Bakkt)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백트 CEO 켈리 레오플러(Kelly Leoffler)가 미국의 평가기관 ‘Worth’ 가 선정한 2018년 금융계 영향력 있는 인물순위 ‘WorthPower100’에서 72위에 올랐다”고 전함
- 해당 순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위,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98위, 크리스타리나 게오르기예(Kristalina Georgieva) 세계은행 CEO가 60위를 기록함

■ 뉴욕주, 미국 최초로 디지털 화폐 TF 출범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Nultr에 따르면 뉴욕주가 미국 주 정부 최초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TF팀을 출범함
-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정의할지, 어떻게 규제하고 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뉴욕주 주지사는 지난주 디지털 화폐 연구법안 ‘A8783B/S9013’에 서명함
- 주지사, 하원의원, 주의회로 구성된 해당TF팀은 오는 2020년 12월 25일까지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미국 경제학협회, 연례회의서 4개 블록체인·암호화폐 학술 논문 발표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협회(AEA)가 4일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
- 보고서가 발표될 세션은 블록체인 및 토크노믹스(Blockchain and Tokenomics)로, 각 학회에서 준비한 4개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경제학 관련 학술 논문을 다룬다는 게 AEA측의 설명임
-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경제학과 재정학 조교수 린 윌리엄 총(Lin William Cong)의 사회로 진행되며, ‘중앙화 마이닝 풀 안의 탈중앙화 마이닝’, ‘암호화폐: 새로운 투자 도구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ICO의 이론: 다양화, 에이전시 및 정보 비대칭’, ‘토크노믹스: 분산화에 이바지하는 다이내믹한 보상’ 등 논문이 발표됨

■ 미국 텍사스주, 스테이블 코인 송금법 적용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텍사스주 은행이 새로

운 합의문을 발표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해당 주 ‘화폐’ 정의에 속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주 송금법이 적용, 관련법 규제를 받게 됨

■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 발의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가 지난 7일 암호화폐를 콜로라도 증권법 규제 범위에서 일부 제외하는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 (Colorado Digital Token Act)을 발의함
- 해당 법안은 기존 증권법의 증권 등록(securities registration) 및 증권 중개인과 판매인의 라이선스 등록 의무에서 디지털 토큰 거래자 개인을 면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 네바다주, 8개월간 약 1,000개 블록체인 혼인증명서 발급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AP통신의 보도를 인용 “최근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부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네바다주에서 약 1,000개의 이더리움 기반 혼인 증명서가 현지 거주 부부들에게 발급됐다”고 보도함
- 현지 정부 관계자는 “지방 정부들이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포맷을 허용하는 정도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제로 일부 부부들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증명서 발급을 꺼려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고 말함

■ 미국 와이오밍 신임 주지사 “블록체인 친화 정책으로 기업 유치”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지난 7일 와이

오밍주 신임 주지사 마크 고든(Mark Gordon)이 취임연설에서 작년 와이오밍주가 비프체인(BeefChain)등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한 혁신적 사례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함

- 해당 미디어는 카르다노 개발사 IOHK의 CEO인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회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몰타 대신 와이오밍주를 선택했다며, 와이오밍주가 블록체인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함

■ 미국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맨해튼 ‘블록체인센터’ 설립

-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경제개발공사(EDC)가 맨해튼에 ‘블록체인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벤처캐피탈 퓨처스퍼펙트 벤처스(Future/Perfect Ventures) 및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조합 GBBC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활용에 관해 연구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애나 아리노(Ana Arino)EDC 전략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긴 게임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블록체인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함

■ 미국 뉴햄프셔로스쿨, 블록체인 관련 법률 커리큘럼 개설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햄프셔로스쿨이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해당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블록체인 학위 증서를 제공한다는 설명임

- 미디어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해당 커리큘럼에 관심을 가졌으며, 뉴햄프셔 로스쿨측은 헤스터 피어스(Haster Peirce) 미국 SEC위원, 블잠피르(Vlad Zamfir) ETH 재단 연구원, 테일러 모나한(Taylor Monahan) 마이크로캡토 월렛 CEO등 블록체인 산업 전문가를 강의에 초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미국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캐피탈 첫 증권형 토큰 거래 체결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거래 전문 업체 셰어스포스트(SharesPost)가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블록체인 캐피탈이 앞서 발행한 증권형 토큰 BCAP의 첫 번째 거래를 체결함
- 해당 토큰은 ETH 기반 토큰으로 블록체인 캐피탈 III 디지털 리퀴드 벤처펀드 주식과 연동됨

■ 미국 비트와이즈,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신청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
- 해당 ETF 상품은 비트와이즈 ‘Bitcoin Total Return Index’의 수익률을 쫓아가며, SEC 승인 시 세계 최대 ETF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 아카(Arca)에 상장된다는 게 비트와이즈 측의 설명임

■ 미국 서클 CEO, SEC에 암호화폐 분류 관련 ‘기준’ 촉구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Circle)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분류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그는 “각양각색의 암호화폐 중 어떤 부류가 통화 및 상품으로 분류되며, 또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암호화폐 기반 유가증권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다수 암호화폐 증권 아냐..CFTC, FTC 규제가 적합”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런 소토(Darren Soto)가 10일 경제 전문미디어 체다와의 인터뷰에서 “증권이 아닌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함
- 또한 대런 소토의원은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해칠 수 있다”며 “관할권과 분류를 확립해 시장에 신뢰와 명확성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미국 대형 금 거래소 JM Bullion, BTC 결제 지원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큰인스파이에 따르면 미국 최대 금 거래소 중 하나인 JM Bullion이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비트페이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는 “BTC를 통해 100달러에서 최대 250,000달러까지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국 연준 보고서 “대량 알트코인, BTC 가격 하락 요인”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BTC가격 하락의 요소 중 BTC와 경쟁 가능한 알트코인의 지속적인 증가이다”라고 말함
-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BTC는 본래 투기성과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다”며 “공급량이 고정됐다고 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알트코인이 많아지면서 일부 자본이 해당 시장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 대형 온라인 유통사, 증권형 토큰 발행(STO)완료

- 1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탁닷컴 산하 블록체인 자회사 티제로가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완료했다고 밝힘
- 티제로는 앞서 지난해 8월 1.34억 규모의 토큰을 발행했으며, 연방 증권법에 따라 90일간의 락업(Lock-up)후 지난 10일 락업을 해지함

■ 미국 투자운용사 월셔 피닉스,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 15일 경제미디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투자운용사 월셔 피닉스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
- 해당 신청서에서 월셔 피닉스 측은 “투자자 스스로 BTC를 구입하는 것보다 휘발성 및 변동성을 줄인 효율적이고 편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외신 “미국 섯다운, ‘BTC ETF’ · ‘백트’ 등 심사지연”

- 15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롱해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변인을 인용 “미국 정부의 섯다운으로 인해, SEC의 반에크 BTC ETF 심사가 지연될 것이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NYSE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백트(Bakkt)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거래 솔루션 제공업체 GMEX 그룹의 CEO 히란데 미쓰라(Hirander Misra)는 “BTC ETF가 당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자산 및 선물 계약의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BTC ETF승인을 원하고 있다”고 말함
- ※ 섯다운 제도 :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

■ 미국 IBM, 블록체인 코발트 추적 프로젝트 추진...LG화학 등 참여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BM이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도입하는 공급망 추적 프로젝트 2건을 진행한다고 밝힘
-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가 되는 코발트 추적 프로젝트로 포드, LG화학, 중국 코발트 채굴기업 화유코발트(Huayou Cobalt) 등도 이에 참여함
-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멕시코 광산 자원의 유통 절차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임

■ 미국 맨해튼 아파트 12채, 매매에 블록체인 활용

- 16일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 자치구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12채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 및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는 아파트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을 통해 임대 및 판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 부동산 매매 방식보다 더 간단하고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임

■ 미국 백트, 기관급 거래·위탁 종합솔루션 구축 예정

- 16일 뉴욕증권거래소 운영사인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기관급 거래·위탁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솔루션을 구축해 실물인수도 방식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하원의원, 암호화폐 기업 송금법 예외조항 제안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엠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이 기존 국가 차원의 자금송출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예외조항을 제안하여 암호화폐 기업의 발전을 돕는다는 설명임
- 해당 제528 결의안은 특정 블록체인 개발자,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 및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 기업에 안전지대를 마련해 송금법에서 예외를 시킨다는 설명임

■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공 분야 블록체인 도입 추진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 정부가 주민 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해 마이클 셔우드(Michael Lee Sherwood)총괄은 “현재 당국은 각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을 앞두고 여러 전문기업 및 기관과 제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함

■ 미국 와이오밍주 입법부,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법안 초안 공개

- 18일 미국 와이오밍주 입법부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 및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표된다고 밝힘

■ 미국 3개주, 슈퍼마켓 ATM에 BTC 판매기능 도입

- 1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코인미가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 알버슨 내 비치된 키오스크인 코인스타에 비트코인 판매기능을 도입함
-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고객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범 서비스가 성공적일 경우 미국 내 다른 지역까지 비트코인 판매기능을 확장할 예정임

■ 미국 와이오밍주, 암호화폐 무형개인 자산으로 분류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정부 입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 암호화 자산을 △디지털 소비 자산(Digital consumer assets)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등 3가지로 분류함
- 이는 해당 자산 분류에 속한 자산을 무형개인 자산으로 여기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동일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와이오밍주, 미국 최초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허가 예정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은행 업무를 허가한다고 밝힘

- 해당 주의 주의회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통과된다면 디지털 자산은 현행법 내 자산으로 분류될 예정임

■ 미국 CER “크라켄 · 코인베이스, 보안 등급 최고”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마켓 평가 분석기관인 CER이 코인마켓 기준거래량 Top100 거래소의 보안능력을 평가함
- 평가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프로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바이낸스와 비트맥스가 그 뒤를 이었고 업비트는 14위, 빗썸은 93위를 기록함

■ 비트코인 가격, 금과 반대로 움직여...이유 살펴보니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018년 11월 13일 온스당 1,196달러였던 금 가격은 최근 1,300달러로 뛰어올랐다고 밝힘
-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축소하거나 멈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탓임
- 코인데스크는 금과 비트코인 가격 통계 측정 범위는 “-1부터 1사이일 때, 90일 상관계수는 -0.593이었다”며 “음수 값은 두 변수 사이의 역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면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한 변수가 변경될 때 다른 변수의 상대적 변화만을 설명할 뿐”이라고 덧붙임

■ 미국 백트, BTC 선물 거래 관련 주요 사항 발표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뉴스비티씨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가 BTC선물 거래에

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함

- ① BTC/USD 형식 거래 지원(계약단위 1BTC)
- ② 계약 기간 하루 단위로 규정
- ③ 관리·감독 규정 부합 의무 준수
- ④ 완전 담보 방식 채택(사전자금 조성방식으로 BTC매매 진행)
- ⑤ 달러, 파운드, 유로 등 법정화폐 지원
- ⑥ 그 외 암호화폐 금융상품 추가 출시 고려 등

베 네 수 엘 라

■ 베네수엘라 정부, 대규모 부동산 프로그램 자금조달에 페트로 사용 선호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프로그램 자금조달에 오일코인 페트로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 총괄 일데마로 빌라로엘(Ildemaro Villarreal)은 2019년 첫 정부 회의에서 “페트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는 특유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베네수엘라, 경기 침체 지속...암호화폐 활용 도모

- 1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기 침체와 볼리바르의 가치 하락이 지속하는 가운데 해당 국가의 비트코인캐시(BCH) 지지자들이 암호화폐의 이점을 꾸준히 홍보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BCH 밋업’의 참가자 예정자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14일 기준 349명을 기록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페트로 가치 4배 절상안 검토...“인플레이션 잡는다”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페트로가 석유의 부족 현상 및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300% 올려 월급을 1.8만 볼리바르까지 재고하고 동시에 페트로의 가치를 4배 올려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태인 현지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것임
-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 의회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함

러시아

■ 러시아 최고 교육기관 교수 “정부 대규모 BTC 구매 예정”... 미 제재 회피 방안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최고의 공공 교육기관인 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RANEPA) 블라디슬라브 긴코(Vladislav Ginko)교수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정부 당국이 몇 주 안에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대규모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4,660억 달러(약 542조 7,160억원) 규모의 외화 보유액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임

■ 러시아 하원의장, “다음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법안 집중 토론할 것”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9일 러시아 의회 바체슬라프 보로딘(Vyacheslav Volodin)하원의장이 “디지털 경제에 관한 법인이 곧 열릴 의회의 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함

■ CCN, “러시아 정부 BTC에 100억달러 투자설은 가짜 뉴스”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이 “최근 데일리호들, 비트코이니스트 등 미디어에서 보도된 러시아 정부가 미국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 100억달러 규모의 BTC를 구매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가짜 뉴스”라고 보도함
- CCN은 “해당 기사들의 출처는 모두 러시아 공공 교육기관 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RANEPA)의 경제학자 블라디슬라브 긴코(Vladislav Ginko)교수의 트위터와 연관이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도 없으며 이 학자를 ‘크렘린궁 경제학자’로 격상시키기까지 했다”고 설명함

- CCN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뉴스 관련 입장을 문의한 결과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함

■ 러시아 총리, “변동성 암호화폐 매장할 명분 아냐”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러시아 현지미디어 타스(Tass)를 인용, 러시아 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가이다르 포럼에서 “모든 사회·경제 현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라며 “암호화폐 산업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형세는 국제 사회가 관심이 있는 주요 사항 중 하나다”라며 “지난 일 년간 암호화폐에서 나타난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이는 암호화폐를 매장할만한 명분은 아니다”라고 말함

■ 러시아, 대규모 BTC 매입설 부인...“30년 이내 계획 없어”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월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암호화폐 리스크 평가 부서 총괄 엘리나 시도렌토(Elina Sidorenko)가 최근 전해진 러시아 정부의 대규모 BTC 매입설을 부인함
- 그는 “해당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없다”며 “러시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를 결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적어도 향후 30년간 대규모 BTC를 매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함

■ 러시아 재무부 차관 “암호화폐 체크카드 결제, 합법적”

- 19일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차관 알렉세이 모이시프가 “암호화폐 기반의 체크카드를 활용한 결제가 러시아 현지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거래는 모두 합법적”이라고 밝힘

영 국

■ 영국 FCA, 암호화폐 기업 조사중...규제 범위 확대 추진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최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조사를 받은 67개 프로젝트 중 49개는 이미 폐쇄되었으며, 18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존 글렌 영국 하원의원이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FCA가 모든 디지털 화폐와 토큰에 관리 감독을 시행할 수 있게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준비중이다”고 전함

■ 영국 최초 압류 암호화폐 경매...8,400달러 규모

- 6일 외신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에 있는 기업 윌슨 옥션(Wilsons Auctions)이 영국 최초로 압류된 암호화폐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고, 해당 경매는 167.7 모네로(XMR)약 8,400달러 규모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 Fineqia, 이더리움 기반 채권 발행 추진

- 10일 온라인 미디어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원(FCA)의 글로벌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Fineqia International Inc. 산하 Fineqia Limited 및 Nivaura Limited가 제휴를 체결함
- 양측은 해당 제휴를 통해 암호화 자산 기반 채권 발행을 테스트할 계획이며 해당 채권의 발행, 청산 및 관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다는 설명임

■ 영국 지난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액 2억 파운드 돌파

- 10일 암호화폐 미디어 넥스트웹이 피치북(Pitchbook)과 런던앤파트너스(London&Partners)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8년 한해 영국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이 2억파운드(약 2,800억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하였고, 이는 지난 2017년 1,911만 파운드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음

■ 영국 암 연구소 ‘란코르’ CEO “의료데이터 보관에 블록체인 활용할 것”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암 연구소 란코르사이언티픽(Lancor Scientific)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 검진 툴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
- 해당 툴의 정확도는 90%에 달하며 추출된 데이터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관된다고 하며 이와 관련 아미르버트(Amir Butt) 란코르 CEO는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병원이나 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영국 HSBC, 2,500억 달러 규모 외환거래에 블록체인 활용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계 대형 은행 HSBC가 14일 “최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 HS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HSBC는 ‘HSBC FX Everywhere’ 플랫폼을 통해 3백만건의 외환 트랜잭션과 추가적인 15만건의 결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함

■ 포브스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영국 비트코인 거래소 수요 증가”

- 18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낸스 CEO 자오창평의 말을 인용, “바이낸스가 영국 저지에 플랫폼을 오픈한 뒤 가입 폭증으로 과부하가 일어났다”며 15일 가입서비스를 오픈한 바이낸스 저지(Binance.je)가 영국 파운드화 및 유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바이낸스의 CFO 웨이저우(Wei Zhou)는 이와 관련해 “유럽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정화폐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이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될 기회”라고 말함

■ 영국 머큐리 FX, XRP 기반 국제 송금 성공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제 환전 서비스 머큐리 FX가 18일 XRapid를 사용해 리플(XRP) 기반 국제 송금에 성공했다고 밝힘
- 머큐리 FX측은 “SWIFT와 비교해 1.2만 엔의 비용과 31시간을 절약했다”며 “우리는 이미 SWIFT에서 탈피하는 전환점에 와있다”라고 평가함

■ 영국 FCA “올해 말 특정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금지 방안 논의 예정”

- 23일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미디어 CNBC에 따르면, 영국 금융청(FCA)이 “올해 말 특정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거래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다 다양한 암호화 자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스 위 스

■ 암호화폐 ‘흑한’ 에도 암호화폐 ‘봄날’ ...750개 기업 몰려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추크(Zug) 소재의 암호화폐벤처캐피털(CVVC), 프라이스위터하우스쿠퍼스(PwC), 스트레티지앤, 스위스 IT 컨설팅업체 이넥타(Inact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 내 암호화폐 기업 수가 작년 4분기 20% 증가했다고 밝힘
 - 시장 위축으로 50대 기업 가치는 작년 4분기 440억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사업체 수는 629개에서 750개로 20% 증가함
 - 작년 4분기 120개 기업이 새로 시장에 진입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들로 확인됨
- ※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 : 비트메인(Bitmain), 카르다노(Cardano), 디피니티(Dfinity Foundation), 이더리움(Ethereum)

중 국

■ 화웨이 블록체인 총괄 “2019년, 실물경제와 블록체인 결합 가속화”

- 2일 중국 현지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블록체인 총괄 주차오후이(朱朝晖)가 최근 인터뷰 중 “블록체인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이 전자 상거래의 중요 요소라는게 화웨이의 관점”이라며 “블록체인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말함
- 또 그는 “블록체인과 실물 경제의 결합은 현재 절충 과정을 겪는 중이고, 2018년 한 해 기반을 다졌으며 2019년은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임

■ HSBC 중국 법인, ‘중국 무역금융 은행간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합류

- 3일 중국 현지미디어 중신서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 중국 유한공사가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은행업협회가 추진 중인 ‘중국 무역금융 은행 간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에 합류했다고 발표함

■ 중국은행 前 부총재 “법정화폐 ‘디지털화’, 불가피”

- 7일 중국 현지미디어 PA뉴스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前 부총재 왕永利(王永利)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현재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는 간단히 말해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함
- 또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결국 커뮤니티에 한정된 코인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향후 커버리지, 적용수준, 사용자 활성화도, 커뮤니티 역량 등에 의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라 분석함

■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업자 등록 규정 발표...2월 15일 실시

-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인터넷 정보 관공실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함
-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관리규정은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업체는 서비스 시작 후 10일 내로 국가 인터넷 정보 관공실 산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 시스템에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식 △응용 분야 △서버등록위치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중국 2위 이동사, 국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참여

- 18일 중국 현지미디어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차이나 유니콤이 중국 국가발생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함
- 차이나 유니콤은 현재 하이퍼레저 소스코드, 분산식 데이터 저장 기술, 합의 프로토콜 컴퓨팅, P2P 네트워크 등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중국 후오비, 일본 금융청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 취득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7일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고 밝힘
- 후오비 산하 후오비 재팬 홀딩은 지난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트레이드를 인수하며 일본 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음

■ 중국 난징시, “행정·금융·의료·보험분야 블록체인 활용방안 연구”

- 21일 중국 온라인 IT미디어 차이나바이트에 따르면, 중국 난징시 정부가 ‘남경시 블록체인 시범 응용 발전 백서’를 발표하고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각 산업 분야에 응용, 실사용 단계에 이르렀다”며 “향후 행정, 금융, 의료, 보험 등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함

■ 알리바바 회장, “디지털 경제규제 충분한 발전 여지 남겨야...스마트 규제 필요”

- 22일 중국 경제미디어 시나 파이낸스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디지털 협력에 관한 UN 고위급 패널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규제는 충분한 발전 여지를 남겨두고 진행돼야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디지털화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규제 입법화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에게 신발을 맞춰 평생 신게 하려는 꼴”이라고 지적함
- 또 그는 “디지털 기술은 인류가 보편적 혜택을 누리게 하며, 긍정적인 역할이 부정적인 문제를 능가한다”며 “디지털 기술 분야의 규제는 전망성,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과거의 강력한 규제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함

■ 비트메인, 중국 유력 통신사와 AI 연구소 공동 설립

- 24일 중국 현지미디어 칸차이왕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생산업체 비트메인이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차이나 유니콤의 항저우 리서치 센터와 함께 AI 연구소를 설립하였다고 밝힘

일 본

■ 일본 FSA, 암호화폐 자금 조달 제한 예정

-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FSA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함

■ 일본 GMO, 작년 4분기 암호화폐 채굴 매출 적자...채굴 보상은 증가

-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대형 IT기업 GMO 인터넷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실적이 최근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굴 보상은 증가하였다고 밝힘
- GMO가 최근 발표한 월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GMO 인터넷의 지난해 4분기 암호화폐 채굴 매출은 355억엔(약 3억 2,000만 달러 규모) 적자를 기록함

■ 일본 FSA, “비트코인 ETF 승인 검토, 사실 무근”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 관계자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금융청, 비트코인 ETF 승인 검토 중’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일본 FSA측은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ETF승인과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며 “블룸버그가 언급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함

■ 일본 FSA,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심사 세분화...6개월 이상 소요

- 11일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 심사 절차를 세분화

할 예정이라 밝히고, 이와 관련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180여 곳이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이 중 7개만이 정식 심사 과정에 돌입했다”라며 “정식 심사 이후 라이선스 발급까지 약 6개월간의 검토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발표함

■ 일본 FSA,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업데이트..총 17곳

- 11일 일본 금융청(FSA)가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였으며, QUOINEX,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VCTRADE(SBI산하 거래소), GMO Coin, 후오비, BTC박스, 비트포인트, DMM비트코인, 비트게이트, 코인체크, 자이프, 테크뷰로(자이프 모회사) 등 17곳이 포함됨

■ 일본 후지쓰, 사내 블록체인 기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시행

- 21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IT기업 후지쓰가 오키나와현 미야코 섬 시내의 20개 지사 200명 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힘
- 해당 프로그램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직원들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걸음 수, 수면 시간 등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보관돼 위조할 수 없으며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행동(일정 걸음 수 이상 도보 등)을 한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시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설명임

■ 일본, 전세계 블록체인 스타트업 선호국 3위

-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이나운스에 따르면, 전세계 블록체인 스타트업 선호 10대 국가 중 일본과 싱가포르가 3, 4위에 오름
- 1, 2위는 몰타,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5위는 벨라루스, 6위는 에스토니아, 7위는 남아공, 8위는 덴마크, 9위는 미국, 10위는 UAE가 차지함

■ 일본 규제당국, 엔화 연동 암호화폐 정산 시스템 시범운용 승인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 개발업체 크립토 가라지(Crypto Garage)가 일본 정부로부터 BTC 사이드체인 기반 엔화 연동 정산 시스템 ‘세틀넷’의 시범운용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계획에 최초로 혜택을 받는 블록체인 금융프로젝트라는 게 크립토 가라지 측의 설명임

■ 일본 마이니치신문, 블록체인 활용 연구개발 착수

- 22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위치에 따르면, 블록체인 벤처업체 가우디(Gaudiy)가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함께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힘

■ 일본 아오모리 은행, SBI 산하 블록체인 펀드에 3억엔 출자

- 24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 은행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투자 펀드 SBI AI&Blockchain 펀드에 3억엔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남
- SBI AI&Blockchain 펀드는 SBI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펀드로 투자기관과 은행으로부터 총 6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함

■ 일본 미쓰이신탁 은행,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발 추진

- 12일 일본 미디어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 신탁은행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의 변조방지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해당 시스템은 도시, 사무공간, 빌딩을 중심으로 렌탈 데이터와 공실

를, 유지보수 현황 및 기타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돼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일본 FSA, 새로운 암호화폐 · ICO규제 초안 발표

-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14일 새로운 암호화폐 및 ICO규제 초안을 발표함
- 해당 초안에는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은 해킹 사건, 자율규제, 프라이버시 코인과 마진 거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1회~11회 암호화폐 거래소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일본 FSA, ‘암호화폐거래소협회’ 자율규제단체 인정

- 25일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를 자율규제단체로 공식 인정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승인함. 이에 따라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직접 관리 · 감독할 수 있게 됨
- 이번 금융청 결정에 따라 라쿠텐카드, 미쓰이스미모토카드 등 선불카드거래, 송금 업무 주요 기업들이 자금결제협회에 가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결제사업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JVCEA에 가입해 결제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싱가포르

■ 싱가포르, ‘지불서비스 법안’ 국회 심의 통과...관리감독 체계화

- 20일 싱가포르 현지 미디어 비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s Bill)’ 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정식 입법이 되었음
- 옹예쿵(Ong Ye Kung)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싱가포르 금융통화 청(MAS)을 대신해 “MAS는 빠른 시일 내 관련 산업에 자문하고 해당 법안의 시행방법과 면제조항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힘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싱가포르서 블록체인 무역 거래 체결

- 24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 더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싱가포르 지사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국제 무역 금융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힘
- 일반적으로 5~7일이 소요되는 거래를 하루로 단축했고, “공급망 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안과 투명성이 제고된다”라며 “블록체인 솔루션을 더 많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힘

■ 싱가포르 금융통화청, 1개 STO 프로젝트 중단 명령

- 2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ICO 프로젝트 진행 후 STO 프로젝트를 이어간 익명의 토큰 발행인에 대해 프로젝트의 현지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림
- 이는 싱가포르 내 STO 프로젝트들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통화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임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2월 제4호